



즉시 배포용: 2021년 1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 CUOMO 주지사, 2021 시정연설의 일환으로 가정 폭력과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 시정연설(2021 State of the State)의 일환으로 가정 폭력 및 성별 기반 폭력 퇴치를 위한 포괄적인 이니셔티브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 패키지에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주거지 파손, 이사, 기타 가정 폭력 관련 주거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법원행정청(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는 의무적으로 가정 폭력 중범죄 관련 통계 자료를 뉴욕주 사법정의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에 매달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은 가정 및 성별 기반 폭력 근절청(Office to End Domestic and Gender-Based Violence)으로 재편되어, 가정 폭력과 성폭력 등을 포함하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피해자 중심의 종합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가장 두려운 결과 중 하나는 가정 폭력 및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뉴욕은 오랫동안 이러한 비열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서 전국을 선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두를 위한 더욱 안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가해자가 자신이 초래한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이 충을 다루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부의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의장인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가정 폭력에 대한 대응을 선도해왔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이 끔찍한 행위가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두 배로 늘릴 것입니다. 이 역겨운 행동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가해자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충기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자신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루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의 생존자 지원 방식을 재편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성별 기반 폭력 근절청 신설을 통해 뉴욕은 피해자들이 생활을 재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존자 중심의 접근을 시작할 것입니다."

뉴욕이 주거권 부문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룬 가운데, 뉴욕주는 반드시 더욱 대담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강한 신념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Cuomo** 주지사는 법원에 가해자가 주거지 파손, 이사 비용, 기타 가정 폭력 관련 주거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과할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현재 별도의 청취 과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 취득 과정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반드시 판명이 된 경우에만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뉴욕 총기 면허 취득 자격을 잃게 됩니다. 다수의 자격이 없는 가정 폭력 관련 행위가 이렇게 "명명"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주정부가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DV**) 행위를 이렇게 명명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은 법원 서기가 이러한 자격 조건을 상실할 수 있는 판결을 시기 적절하게 보고하도록 하여, **2020년**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다단계로 이루어진 과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는 여전히 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는 여전히 총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가정 폭력 가해자들이 총을 구매할 수 있는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가정 폭력 관련 범죄를 명명하는 새로운 방식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법원행정청이 뉴욕주 사법정의서비스국에 매월 가정 폭력 중범죄 통계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가정 폭력 사건을 모두 집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 및 성별 기반 폭력 근절청을 신설함으로써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민을 위한 정책 및 최신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통합하는 허브를 만들어, 주정부 전체에서 다각적으로 진행되는 성별 기반 폭력 근절 노력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근절청은 다양한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업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생존자를 위한 공정 및 정의 구현을 뉴욕주 주정부의 기본 원칙으로 영구히 공표합니다.

뉴욕 여성들의 끈기와 성 평등에 대한 주지사의 헌신을 통해 가정 폭력 및 성폭행 문제는 뉴욕주 어젠다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주지사로서 취임한 이래, **Cuomo** 주지사는 소녀, 여성 및 모든 가정 폭력 및 학대 생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 폭력 사건 현장에서 강제적으로 총기를 압수하고 판사로 하여금 가정 폭력의 영향력에 대해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며 공동 재산 분배를 결정하는 내용의 **2021 회계연도(FY2021)** 예산에서 추진한 법률을 포함하여 다수의 광범위한 유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폭력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자길 권리를 인정한 가운데, **Cuomo** 주지사는 **2015년 7월**에 성폭력, 데이트 폭력, 대학 캠퍼스 스토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너프 이즈 이너프(Enough is Enough)** 법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 폭력이 급증함에 따라,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와 뉴욕주 여성 및 여아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Women and Girls**)는 **2020년 5월** 이러한 위기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새로운 태스크 포스를 출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뉴욕 협의회, 2019 가정 폭력  
태스크포스(2019 Domestic Violence Task Force), 2020 코로나19 가정 폭력  
태스크포스(2020 COVID-19 Domestic Violence Task Force) 등을 통해 Cuomo 주지사  
행정부는 서비스 제공자, 생존자, 가족 구성원, 관리자 등의 권고를 수렴하여, 각  
생존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원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유연한 자금  
조달 모델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모델은 또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치사율을  
낮추는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여 생존자를 지원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는 가정 폭력 및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위해 연중무휴  
운영되는 문자 및 채팅 서비스, 생존자를 위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는 주거 네비게이터  
과일럿, 뉴욕주 전역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 신설, 수감자 및 이민자 대상 협력자에 대한  
신규 훈련 및 지원 제공, 생존자로부터 직접 필요한 내용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 시행,  
웹사이트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의사소통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